

자유무역시대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 대표/본지 편집위원

그 년은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말이 실감 있게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무한 경쟁을 통한 생존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시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더욱 확고한 FTA 제의가 들어올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완전 개방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산 분야는 불확실한 미래에 한없이 불안감을 안고 있으면서 정부대책에 조그마한 희망을 걸고 바라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축산 분야를 다루었고 따라서 쌀 문제가 최후까지 제기되지 않은 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무한정 지속해 갈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이제는 최저 수준의 농축산 분야의 자급률을 정하고 이를 확고하게 지켜나갈수 있는 기본 정책과 장기 지원책이 유지 되어야한다. 현재의 시끄러운 항변을 우선 달래기 위해서 우는 아기 꾀감 주는 식으로 피해보상, 구조조정, 폐업이행 지원자금 등의 근시안적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농축산 분야의 위축과 초토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군사력 유지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식량 안보 문제가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대책 없는 농축산 분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절대 필요한 자급률 유지를 위한 확고한 지원정책과 손발이 맞는 대책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농축산인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발생으로 축산 방역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방역이 제2국방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다. 미국, 중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국가와의 축산물의 완전 개방은 우리와 같이 좁은 국토 안에서 밀집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축산 현황에서는 항상 새로운 외래성 질병

에 쉽게 노출되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산물 뿐 만 아니라 제반 물적, 인적 교류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외래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앞으로 중국과 FTA가 진행되었을 때 만일 우리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국이 유지되어 있지 못하면 중국의 양계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과 FTA 타결이 이루어진 지금보다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예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내 방역 뿐 만 아니라 국경 검역의 강화와 외래성 질병의 신속한 검색과 조치로 청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방역 측면에서 볼 때 한 단위(가구, 회사)당 축산 규모는 한계가 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 외국과 같이 대규모화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검토되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나 국내 사육 환경을 볼 때 우리나라 축산은 전염병 발생이 많고 한번 발생하면 상재화 되기가 쉬워 전염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장 규모의 확장과 시설의 현대화로 사육 형태의 집약화와 집단화는 매우 위험하고 생산성도 떨어져 원하는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방역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 단위당 종계는 종계대로, CC(실용계)는 CC대로, 사육능력, 지역 환경, 시장 규모와 배치에 따라서 적정 한계 규모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자 현대화를 위한 시설 자금이 지원된다면 기업 축산(회사) 보다는 전업 축산 농가에 적정 한계 규모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화 시대에는 서로가 모든 분야의 정보가 수없이 교류되어진다. 새로운 발상, 시도, 변화에 생각과 마음이 개방되어야 한다. 특히 관계 기관의 보수적인 사고는 축산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 업무 진행에 장애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내 축산 분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고를 가지고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유지해 왔던 제도의 철폐, 또 한편으로는 수입 다양화로 인한 필요한 제도의 유지, 보강 등을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 저것하다 할 것 없으면 아무나 하는 것이 농사요, 축산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늘만 보고 성실한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농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고 새로운 방법이 끊임없이 시도 되어야 한다. 전문 기술자들이 육성 지원되어 농축인 이 쉽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포장 및 수송 방법, 보존 방법, 시장 유통 방법, 식품 안전, 맛 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식, 국제화된 요리 방법도 소개해서 삼겹살, 닭다리와의 같이 한정된 소비 성향의 식습관도 변화를 유도 하여야 한다. 국산품 애용에 의존하는 시기는 벌써 끝났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최종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문화 기술이 접목 되어야 한다.

FTA가 어차피 갈수 밖에 없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농축산 관계인 모두가 일심하여 농축산인을 보호, 육성해 나아가갈 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양계**